"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10,37)

구루메 성마리아병원도 새롭게 한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雪)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주님의 평화

한국의 국민 여러분, 가톨릭 신자 여러분, CHAK 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 세계경제를 뒤흔들었던 리먼쇼크의 영향에서, 한국은 순조롭게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리먼쇼크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져, 일부 대기업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현재도 불안정한 정치의 영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기업과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합니다. "눈(雪)의 성모축일"인 8월 5일, 지하1층, 지상17층의 새 병동의 착공식을 거행합니다. 이 공사는 약 2년 6개월에 걸친 신축공사로 이 공사가 완료된 후, 기존시설의 보수공사와 전체공사를 연이어 진행하여 약 6년 후 최종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의 계획은 오래 전부터 검토해오던 일입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특히 지역의료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가 건축계획입니다. 수년간,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조직개편, 재무상황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응안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여러 차례에 걸친 방문 견학을 통해서 저희 병원의 건축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새 병동 건축과 병원 전체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복지·교육의 전개입니다. 지난 호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의 가톨릭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호에서는 일본 가톨릭신문에 기재된 한국 가톨릭의 현황과 일본 가톨릭의 현황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6월 7일 서울 아시아 가톨릭뉴스(UCAN)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 가톨릭신자 수는, 총 512만 92명(여성신자 299만 2,774명, 남성신자 211만 9,601명, 조정 7,717명)으로 한국의 총 인구(5,064만 3,781명) 대비 총신자 비율이 10.1%를 차지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가톨릭중앙협의회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말 가톨릭 신자 수는 총 44만 1,592명(여성신자 26만 6,031명, 남성신자 17만 5,561명)으로 일본의 총인구(1억 2,586만 3,000명) 대비 총신자 비율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의 계획을 실천함 으로써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직자 중 사제의 수는 4,404명, 일본의 성직자 중 사제의 수는 1,486명(일본국적 887명, 외국국적 594명)입니다. 한국의 여자수도자는 10,073명, 일본의 여자 수도자는 5,768명(일본국적 5,419명, 외국국적 349명)입니다. 한국의 남자 수도자는 1,555명, 일본의 남자 수도자는 201명(일본국적 150명, 외국국적 51명)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만, 일본의 가톨릭 신자 수를 인구에 비례한 수치는 향후 일본 가톨릭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한국 가톨릭신자의 연령 분포도 발표 되었습니다만, (30세~59세가 52.4%, 30세 미만이 28.3%, 60세 이상이 19.3%) 부러울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일본의 급격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하여 일본가톨릭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성직자의 고령화와 신자 수의 감소는 성당과 수도회 경영의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폐쇄, 통합, 이양(移譲)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국민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학비 무료화, 사립학교의 운영보조금 삭감은, 학교 간의 학생 확보 경쟁에 가속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수십 년 후의 일본 경제 상황을 예측해보면, 벌써부터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성마리아병원의 전반적인 재 계획(신축공사착공)은 이러한 일본가톨릭현실 속에서 저희 조직이 이루어나가야 할 미션을 생각하며 검토해왔습니다. 가톨릭이념을 바탕으로 한 보건 · 의료 · 복지 ·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의료기관 중, 최고 레벨의 진료기능을 가진 병원으로서 구루메지역, 국내 · 외로 보내는 것과 가톨릭 이념을 바탕으로 진료 ·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국내 · 외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하여 실천적인 임상 · 간호 등의 훈련 및 교육을 하고, 구루메지역, 국내 · 외로 파견하여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맺는 것이 유일한 미션이라고 생각되어 착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의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기도 부탁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2010년 7월 15일

「行って、あなたも同じようにしなさい。」
(ルカ10・37参照)

久留米の聖マリア病院も新たな一歩を踏み出します。

社会医療法人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主の平安

韓国の皆様、カトリック信者の皆様、韓国CHAKの皆様、今年も暑い夏の季節となりました。ご健勝のことと存じます。一昨年世界経済を震撼させましたリーマン・ショックも、貴国においては順調な回復基調と日本のマスコミ等で報じられています。

日本は、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政治の混乱による対応の遅れで、一部大企業に回復の兆しは見られますが、経済は相変わらず低迷状態です。現在も政治の不安定により、将来に対する計画を策定することができず企業また国民全体に閉塞感が漂っています。

さて、私どもは本年度より新たな行動を開始致します。8月5日の「雪の聖母の日」に地下1階、地上17階の病棟の新築工事の起工式を行います。約2年6か月の新築工事、またその後の既存施設の改修工事と続き全体の工事の完了は6年後であります。

この工事の計画は、数年前より検討してまいりました。急激な少子高齢社会への移行に伴う日本の社会保障制度の改革、特に地域の医療供給体制の変更に対する対応が建築計画の一つの要因であります。この数年間は、大規模な投資に対する組織の見直し、財務状況の改善等種々の対策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特にソウル聖母病院の建築に際しましては何度も訪問、見学をさせて頂き計画の詳細まで参考にさせて頂きました。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関係者の皆様方に厚く感謝申し上げます。

また、建築着工の最も大きな要因は、私どものカトリック理念に基づく保健・医療・福祉・教育の展開であります。過去数回日本のカトリックの現状を述べさせて頂きましたが、今回日本カトリック新聞に貴国のカトリックの状況と日本のカトリックの現状が掲載されていましたので再度比較させて頂きます。

ソウル6月7日UCANによる韓国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の発表では、2009年末のカトリックの信者数は、女性の信者数は299万2774人、男性の信者数は、211万9601人、確認できていない人は7717人で総信者数は512万92人、韓国の総人口5064万3781人に対し10．1%を示しております。日本の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の発表によりますと、2009年末の女性信者数は26万6031人、男性信者数は17万5561人で総信者数は、44万1592人で日本の総人口1億2586万3000人に対し0．3%を示しております。韓国の聖職者の司祭数は4404人、日本の司祭数は1486人(日本籍887人、外国籍594人)となっております。韓国の修道女数は10073人、日本の修道女数は5768人(日本籍5419人、外国籍349人)となっております。韓国の修道士は1555人、日本の修道士数は201人(日本籍150人、外国籍51人)となっております。韓国と日本の現状を簡単に比較することは危険ですが、日本のカトリック信者数の総人口に対する比率の数値は、今後の日本のカトリックにおいて大きな問題であります。韓国のカトリック信者の年齢の内訳が公表されていますが、(30歳から59歳が52．4%、30歳未満が28．3%、60歳以上が19．3%)うらやましい限りの数値です。

日本の急激な少子高齢化への移行は、日本のカトリックの活動の種々の分野の存続に大きな課題となっております。聖職者、修道女、修道士の高齢化、信者数の少なさは、教会、修道会経営の幼稚園、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大学等の運営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閉鎖、統合、移譲が相次いでいます。また、長期に亘る国民所得の低迷による学費の無料化、私立学校への運営費補助の削減は、学校間の学生確保の競争に一層の拍車をかける結果となっています。数十年後の日本の教育の状況にも危惧を感じております。

今回の私どもの病院の病棟の新築工事着工は、このような日本のカトリックの現状における私どもの組織としてのミッションにより検討されています。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保健・医療・福祉・教育の限りなき追及を行うことが私どものミッションと考えています。日本の医療機関での最高レベルの診療機能を有した病院として久留米の地域、国内・海外に発信すること。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診療・運営体制を確立すること。国内・国外よりの専門家を受け入れ、実践的な臨床・看護等の訓練、教育を行い、久留米の地域、国内・海外に派遣し各機関との連携を行うことが唯一のミッションではないかと考え着工を決断した次第です。「ど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神様ご自身が私どもと共に歩んでくださる事を伝え、神様が共に歩んでくださる事にこそ真の幸いがあることを伝える」事を私どもの計画の実践で明らかに示したいと思います。今後とも皆様方のご支援、ご協力またお祈り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神に感謝
2010年 7月 15日